

ESG 자동 우산 건조기 **RAINBLADE**(레인블레이드)

---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경영 실행 → 자본시장(기업)과 국가의 기획에서 기관, 기업 및 개인의 실천으로 확대
- 정부 2020년 10월 국가비전 “2050년 탄소중립’ 선언 →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행정규칙 제정

### ESG 정책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친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ment)

### 환경부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정책 강화



국무총리 훈령 제788호, 2021. 7. 26 제정/시행



상업시설 등 민간기업에 대한 환경 보호 정책 강화 확대 예정

## 우산비닐커버 연간 2억장 ▶ 많은 비용과 환경 오염 발생

분해 시 500년 소요(태울 시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 발생)



[쓰레기 대량 발생 및 비용 지속 발생]



[흡수력 저하 및 교체 방법 불편]



- 우산 비닐 사용 시 다량의 쓰레기 발생으로 건물 미관 저하는 물론 구입과 처리 비용/시간 발생
-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은 우산 빗물로 건물 내 안전사고(미끄러짐 등) 발생
- 빗물 제거력이 낮고 악취로 자주 극세사를 교체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는 제품

# RAINBLADE (친환경/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스마트한 자동 우산 건조기)

Speed changes the world



- ❖ 특허기술 바람으로 자연환경을 지키는 친환경 제품
- ❖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저전력소비 탄소저감 제품
- ❖ 항균 효능이 있는 특수 재질의 덕트 적용
- ❖ 편리하고 쉽게 빠른 시간 내에 우산 건조 가능
- ❖ 전체 방수 기능 포함 되어 감전 걱정 없는 제품

제품명	레인블레이드
전원	220V / 60Hz
정격전력	정격 1.850(W)
대기전력	0.5(W)이하
외장재질	ABS외
외관치수	590(W) X 886(H) X 308(D) mm
탱크용량	4,500ml
건조시간	3~5 초
안전장치	과전류, 온도 과승방지장치, 만수알람, 모터전류감지
무게	약25kg 내외

### 3. 사용 방법



5초만에 완벽한 물기 제거



[사용 전]

[사용 후]

특허 받은 JET BLADE 기술로 토네이도를 구현하여  
우산 종류에 관계없이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

1. 우산을 상단의 투입구에 넣으면 감지센서가 우산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중간에 우산을 제거하면 자동으로 멈춥니다.
2. 우산을 상단의 우산투입구에 넣고 위아래로 움직이며 2~3회 돌려주면 물기가 더욱 신속하게 제거 및 건조됩니다



✓ 유튜브 확인: <https://youtu.be/zv1c212jDg0>



## RAINBLADE

대부분 Recycle 가능(순환경제 구현)

바람을 이용한 기술/적은 전기소모량  
(친환경 전기차의 개념 도입)

항균효능으로 위생적인 환경

고객/ 근로자 안전보건 문제 미발생

항상 동일한 성능 유지

평균 3~5초

폐열 활용기술로 겨울철 활용도 높음

뛰어난 건조성능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감소

전기료 연간 약 15,268원(日 1,000명\*80日 기준)



## 극세사 패드 제품

ESG 기준

극세사패드 재활용불가(대량 탄소배출)

ESG 기준

소각 시 발암물질 발생(다이옥신 등)

ESG 기준

악취, 곰팡이 발생  
(세탁과 건조 반복이 필수)

ESG 기준

고객 및 취약계층 근로자 안전보건 문제 발생

내구성

사용중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짐(패드 교체 필수)

시간

당사 제품의 최소 3배(사용자에 따라 시간소요 가중)

겨울시즌

겨울철 강설시 사용불가(패드에 눈 흡착 시 제거 불가)

안전사고

우산 낙하물로 인한 미끄럼 사고의 발생율이 상승

유지비용

패드교체 연간 4회 이상 약(40만원~, 인건비 별도)





대한민국 3대 백화점을 비롯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 100여개 기관에서 사용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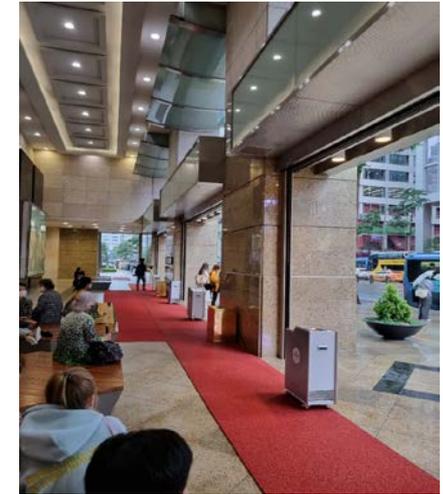
[신세계 백화점]



[신세계 분더샵 청담]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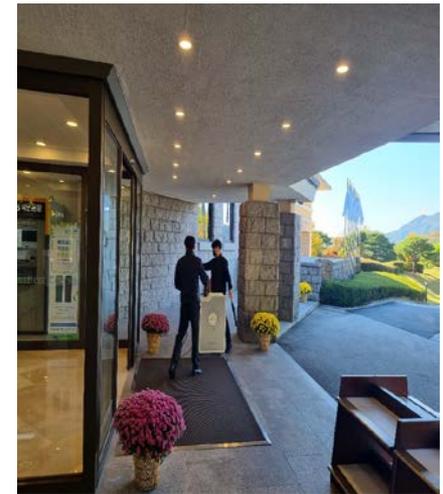
[롯데아울렛]



[NH농협생명]



[킨텍스]



[일동레이크 GC]

# 7. 설치 현황 (MIRAL)

Cafe 네이버 카페



우리들의 사랑방 >

## 비 오는 날 롯데,신박한 서비스.(ft.우산건조기)

purplerain0417 다이아몬드 1:1 채팅  
2022.09.05. 18:55 조회 8,330

댓글 86 URL 복사

- ◆ [Q] <https://cafe.naver.com/hotellife/1724441>
- ◆ 반드시 상단 공지 확인후 작성 (위반시 이동,삭제)
- ◆ 쇼핑talk- 구매인증필수, 쇼핑링크불가. 릴레이인증불가
- ◆ 나눔- 선착순X 1만 원미만X (나눔게시판이용)
- ◆ 삭제예고, 답변완료글 삭제시 제한됩니다.
- ◆ 사랑방에 쇼핑 링크 반복시 불법광고활동으로 제한됩니다

태풍 오고 비바람 치는 오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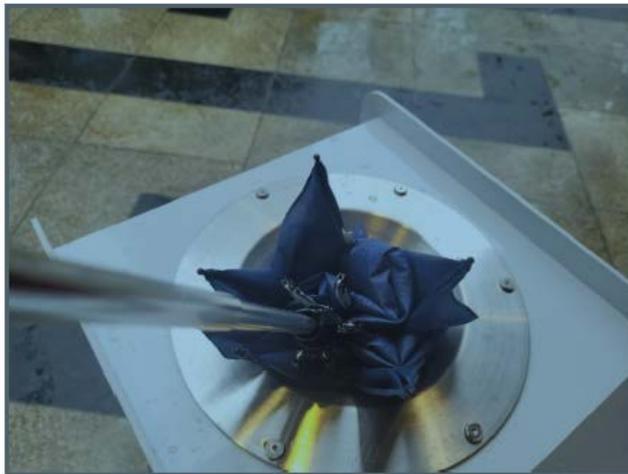
롯데,롯데 입구에

이런 서비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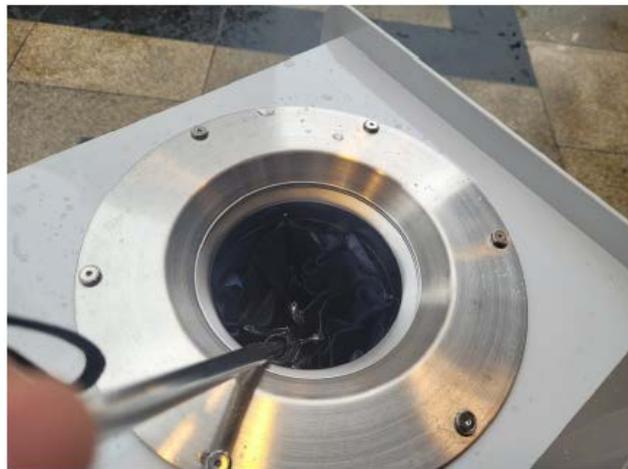
참 좋네요.



그게는 바로!  
우산 건조기



우산에 비닐 덮거나  
우산용 대걸레 기계.  
종과 할 거 없어.



건조기 안에 넣고 휘리릭-

**YTN**

[ 기사보기: [https://www.ytn.co.kr/ln/0105\\_202110090404448627](https://www.ytn.co.kr/ln/0105_202110090404448627) ]  
 [ 동영상 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TzV1szlmyx8> ]

과학

**편리함보다는 환경을...1회 용품 줄이는 발명**

2021년 10월 09일 04시 04분 댓글 1개



**프라임경제**

[ 기사보기: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479843> ]

**[우리모두뉴스] 한국미래환경협회와 스페이스링크가 일회용 비닐우산 사용을 줄이고 있어요**

친환경 캠페인 진행 약속...우산 건조기 '레인블레이드' 이용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mailto:hih@newsprime.co.kr) | 2019.11.19 09:01:07



[프라임경제] 한국미래환경협회와 스페이스링크가 지난 10월 친환경 캠페인 진행을 약속했어요. 이들은 이 약속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회용 비닐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 우산 비닐 줄이기' 활동을 진행했어요.

일회용 우산은 비가 내릴 때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우산을 말해요. 비닐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일회용 우산에 사용되는 우산 비닐을 만들려면 1년에 698톤(69만 8000kg)의 이산화탄소가 생기며, 사용 후 버려지는 우산비닐은 2억장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버려지는 일회용 우산 비닐은 플라스틱처럼 우리 몸에 안좋은 미세먼지 등의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암을 생기게 하는 물질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점에서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해요.

'우산 비닐 줄이기 캠페인'에는 스페이스링크의 우산 건조기 '레인블레이드'가 사용되었어요. 강한 바람을 통해 순간적으로 우산의 빗물을 날리는 친환경 제품인데요.

유한선 한국미래환경협회 회장은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 하나가 환경을 살리고, 자연을 살릴 수 있다"며 "일회용 우산 비닐 줄이기 캠페인을 널리 퍼뜨린다면 낭비되고 버려지는 일회용 비닐도 줄이고,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일회용품 줄이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 기사보기: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24494> ]

## 우산 빗물제거기, 외면받는 이유

▲ 김지현 기자 | © 압력 2022.07.24 15:01 | 댓글 0

비닐 대신 친환경 목적 도입했지만  
빗물 완전 제거 못해 추가작업 해야  
다시 우산비닐로 전환 건물 늘어



▲ 우산 빗물제거기. 금강일보 DB

비만 오면 넘쳐나는 우산비닐을 줄이기 위해 빗물제거기가 도입됐지만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빗물이 잘 제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관리인들은 다시 우산비닐로 눈을 돌리고 있다.

[ 기사보기: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4/23/2018042300059.html> ]

## 1회용 비닐 대신 우산빗물제거기 설치한 서울시, 성능 때문에 고민

'폐비닐 발생 줄이기' 정책에는 공감...60만원 대 빗물제거기, 성능 기대에 못 미쳐  
다음 달부터 시 산하기관에서 1회용 비닐 커버 사용 중지

김태영 기자  
입력 2018-04-23 14:14 | 수정 2018-06-22 20:36



[ 기사보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518000348> ]

환경

## 갈길 먼 '우산 비닐커버' 퇴출

공공기관만 빗물 제거기 설치  
백화점등 민간은 여전히 사용

5월 1일부터 서울시 공공청사와 지하철 역사에서 우산비닐커버가 사라졌다. 재활용되지 못하고 쓰레기로 처리되는 젖은 비닐을 줄여 쓰레기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우산 비닐커버를 빗물제거기로 대체했지만 민간시설에서는 아직 이런 장비의 설치가 요원하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우산빗물제거기 설치율은 높은 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17일 기준으로 전체 25개 구청 중 23곳이 우산비닐커버 대신 빗물제거기를 설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권고조항이긴 하지만 환경보호에 동참하고자 대부분 구청에서 구청사 내 빗물제거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아직 동사무소 등 산하기관까지는 범용화하지 못했지만 차차 예산을 확보하며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청사에 설치된 빗물제거기. 극세사로 물기를 흡수하는 형태다. [제공=서울시]

이처럼 저조한 민간 참여에도 서울시는 공공기관부터 선례를 만든다는 방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산 3000개까지 빗물을 제거할 수 있는 모델로 알고 구입했지만, 막상 써보니 1000개 이상부터는 물기 흡수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이번 폭우로 드러났다"며 "장마철을 대비해 빗물을 닦는 극세사 부분을 정수기 필터처럼 교체할 수 있는 모델을 도입할 수는 없을지 업체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kacew@

[ 기사보기: [http://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7&seq\\_800=10356853](http://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7&seq_800=10356853) ]

수도권

## '우산 빗물제거기'... "취지는 좋지만 효율성 떨어져"

류필희 | [graven56@tbsv.or.kr](mailto:graven56@tbsv.or.kr) | 2019-09-04 17:11

【앵커멘트】

지하철역이나 건물 입구에 비치된 '우산 빗물제거기'... 기존의 우산을 닦는 일회용 비닐을 대체한 것으로 한번쯤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물기가 완벽히 제거되지 않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류필희 기자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기자】

비 올 때 건물이나 시설 내 물기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했던 일회용 우산비닐 커버.

한편쓰면 물기 때문에 재활용이 힘들고 환경 오염 문제로 지난해부터 공공기관과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우산 빗물제거기가 설치됐습니다.

**물기를 천에 닦아서 제거하는 방식이라 친환경적이지만 물기가 완벽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INT】 민용기 / 서울시 성북구

"비닐은 그냥 끼워서 (건물로) 들어가면 되는데, 닦아도 물기가 떨어지지 않아요. 한참 흔들어야 하니 시간도 걸리고요."

【INT】 박명숙 / 서울시 성북구

"아무래도 물이 좀 떨어지면 미끄럽고 그런(사고)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이용자가 많은 시간에는 우산의 물기를 충분히 닦을 수도 없습니다.

또 연속적으로 사용하다보면 빗물제거기가 계속 젖어 있어 빗물 흡수 기능도 떨어집니다.

시민들은 환경을 고려한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 빗물제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INT】 유화정 / 경기도 성남시

"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는 괜찮았는데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미끄러지고 낙상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물기가 안 떨어지는 걸로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대당 50만원이 넘는 '우산 빗물제거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등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자투리 방수원단을 활용해 물기가 흐르지 않고 기존 일회용 비닐 커버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재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우산 커버를 사용하자는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어 눈길을 끄니다.

감사합니다!

---



SpaceLink

Think Environment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7 DMC산학협력센터 9층

02-2102-1700